



### 4월의 기도

1.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계절에 저희 모두의 신앙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듯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새롭게 피어 오르게 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2. 사랑의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덜어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평안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히 낯선 환경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3. 무엇보다 먼저 중동지역 하늘을 뒤덮은 포성과 미사일의 비극이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장대한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작전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며,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봉쇄된 길들이 열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불안이 해소되게 하시옵소서.
4.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히 서서, 세계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대한민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진정한 피난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7)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 숨어있는지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요나가 숨어 있는 곳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 139:8) 사람들은 ‘나는 피하고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평안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사회 속의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어리석은 모습, 병든 모습, 추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덮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결코 여러분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환경은 안개와 같아서 언젠가는 걷힙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피하고 숨겠다는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휴식, 깊은 평화, 반석과 같은 안정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되돌아 보는 DCEM 2007년 해외성회 <2007 일본 춘계일일축복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일본 일천만 구령'은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침체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영혼 구령 운동이다. 일천만 구령을 목표로 선포된 조용기목사의 '희망의 메시지'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했다.

신도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복음전도가 어려운 그곳에서 2007년 3월 27일 개최된 조용기 목사의 '춘계일일축복성회'는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본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한 성회였다.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동경교회가 주최한 '춘계일일축복성회'는 동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교회에 이르기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그리고 일본리바이벌연맹(Nippon Revival Association)과 재일한국기독교선교사연합회(Korea Missionary Association) 목회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3가지'를 피력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목사는 일본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춘계일일축복성회'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앞서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 30주년 (2007년 당시)'을 기념하여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하여 7월에 개최될 '2007 ALL JAPAN JESUS FESTIVAL'의 성공적인 개최와 순복음동경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도 뜨겁게 기도했다.

복음전파(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직접 복음전파에 나서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조용기 목사의 일본 일천만 구령은 지난 1978년 동경 중심지에 세운 순복음동경교회를 전초기지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0년이 지난 지금 순복음동경교회는 복음전도의 다양성을 위하여 세분화된 일본 개신교 교단들 간의 연합을 이끌어 낸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 생명의 전문가, 예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절~10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1.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보이는 겉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이지만, 순서를 보면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몸인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입증한 연구가 있는데, 70대 노인들을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70대 그 나이에 경험한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50대의 젊었던 이야기들을 현재의 이야기처럼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50대처럼 이야기 하고, 화장실일, 부엌일, 집안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해보니깐 70대 노인의 시력, 청력, 기억력, 악력이 전부 50대 젊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실제로 몸도 젊어졌습니다. 몸은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젊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젊고 활발한 생명도 마음에서 나오고, 늙고 지치고 늙어져 버리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2.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젊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고 죽었습니다. 저가 찢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육체가 젊어지고 활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몸이 그렇게 따라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육체도 고난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육체가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몸이 젊어져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13절에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생각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육체가 젊고 힘이 있고 당당하게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와 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찬 내 성찬,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육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 3.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삶 육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오종복음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종복음을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추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가난과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부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온몸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집에 생활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몸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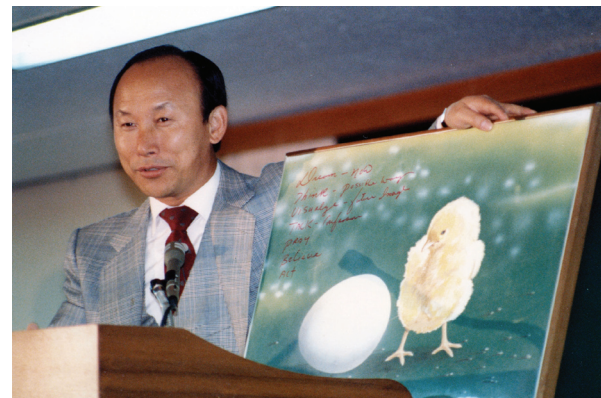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내 영혼이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나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마음에 일어나지 않은 것은 환경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지만은 마음과 몸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과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심일조를 드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마음에 가난의 의심을 없애고 축복으로 가득 채울 때 물질적인 환경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곳에 육체와 환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20

## 시험을 이기는 길, 불같은 시험과 향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5:11,12)

본문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 억울한 누명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생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많지만, 주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모두 다 기록해 놓았다가 보상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거리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이들처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주막에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자기 불일 때문에 며칠간 떠나갔다 와야 했을 때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면서 그 수고비를 다 갚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꼭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올라갈 때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하늘의 해처럼 빛납니다. 그 다음으로 수고한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그 다음은 별처럼 빛납니다. 전혀 수고한 것이 없다면 개똥벌레처럼 희미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중 제일 큰 상급은 순교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는 최고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몹시리 치도록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나 선배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모두 다 내 편리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을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영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굳세게 신앙을 지켜 나가십시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